

# "나는 기생충이야"

요충(蟯虫) 이야기 ②

李 純 炯

우리 요충은 사람들에게 경감염되었을때는 단 한마리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5,000마리에서 10,000마리가 모여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충의 보금자리인 충수돌기를 수술로 떼어낼때 한몫에 우리 요충들이 끌려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요충들이 그곳에 암전하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충들이 충수돌기염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렇듯 사람몸밖으로 쫓겨나가 삶을 마치게 되니 어울하기 짝이 없지요.

일부 물지각한 우리 동료들이 때로는 장점막을 씹어놓기는 하지만 사람들도 이것이 충수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사람몸속에 어디에나 우글 우글 모여 살면서 등살을 매는 세균들이 우리 요충이 씹어논 장점막으로 파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물지각한 요충들이 저지르는 여러가지 행패 때문에 변명할 여지도 없이 끔찍못하고 선량한 다른 요충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는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과격한 우리 동료는 창자벽을 뚫고 부강내에 나와 복막에 잡혀 있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은 놈은 일단 항문밖으로 나왔다가 그 가까이 있는 동굴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죽여성의 생식기로 들어가 질과 자궁을 구경한다음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않아 자궁에서 수란관(輸卵管)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여기서 더 여행한 친구는 난소(卵

우리는 혼자서도 다니지만 1만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기도 합니다. 충수길에는 덩어리로 몰려있다가 영종이 생기면 수술할 때 덩어리로 우리도 끌려나와 외롭게 참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생식기로 들어가 질과 자궁을 구경한 다음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자궁에서 수란관이라도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어떤 놈은 더 깊이 복강 내까지  
 침투하기도 하여.



요충이야기

藥) 근처의 복강내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요충에 걸린 여자 45명중 11명이 생식기속에 우리 요충알을 갖고 있었다 하니, 우리 동료들이 여행을 하면서도 그들의 본분을 잊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밖에도 요즘에는 이상한 곳에서 우리 요충들의 무덤이 발견된다고 야단들입니다. 미국에서 두사람이 간에 우리 요충을 갖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고 또 한사람은 폐에 기생하는 우리 동료를 보았다고 했는데 이들 우리 요충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곳에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야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의 사회에도 볼지각하고 말썽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미물집승인 우리 요충들의 사회에 말썽꾼이 없겠습니까?

보통 우리요충들이 있을때에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항문가려움증(肛門搔痒症)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요충들이 항문밖에 나와 알을 낳을때 항문주위를 여기 저기 찌르고 긁적거리고 거어다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잠결에 무심코 자꾸 긁게 되니 항문주위 피부가 붉어지고 붓기도 하며 작은 상처가 생겨서 결국에는 습진이나 피부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가려워지고 점점 상처도 많이 생겨서 이곳으로 극성스런 세균들이 몰려들어가 큰 고름주머니(膿瘍)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고름주머니속에 우리 친구와 그 애들(虫卵)이 발견되는수도 있지요. 어찌되었든 이 농양은 아주 고질이라서 이것이 창자속으로 터지는 날에는 농무(膿瘻)를 만드는데 이것은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항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데수가 많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아이들이 신경질과 짜증을 잘내게 되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경련 발작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불면증에 걸리는 일이 많은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잠 못 이루는 이밤을 위하여』라든가 『한밤의 음악편지』등 심야의 라

오 프로를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어썬면 우리 요충이 많이 신세를 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보면 자못 감상적이고 낭만을 즐기는듯한 사람, 성격이 예리하고 신경질적인이치형(理智型)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요충에 걸린 비위생적인 사람들도 많을듯 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자꾸 항문을 긁다보면 직장(直腸) 및 방광



오줌싸개 아이종에는 부모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고장이 생겨 오줌을 싸기도 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기계적 자극을 받아서 오줌싸개가 되는 수도 있죠. 우리 때문에 야단 맞아 미안해요.

(膀胱)의 괄약근(括約筋)이 자극으로 인하여 계속 수축을 하게 되므로 잠잘때에는 이것이 과로로 풀어져 종래 오줌이 새어 나오게 됩니다.

오줌싸개라는 별명을 가진 어린이들 가운데는 부모들의 편애때문에 정서적 장애가 있어 오줌을 싸는 애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요충들을 가지고 있어 기계적 자극을 주기때문에 밤에 오줌을 싸게 되는 아이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오줌싸개들에게 키를 씌워 옆집에 소금을 얻으러 보내기 보다는 먼저 우리 요충이 있나 없나를 살펴주는것이 부모들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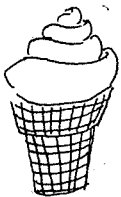
우리 요충들이 또 우습게 생각하는것으로는, 우리 요충을 가진 어린이들이 항문을 긁으면서 쾌감을 느끼다가, 끝내 항문근처 동네에 있는 생식기를 건드리면 쾌감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손장난(手淫)을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아 두셨다가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하여간 무자식 상팔자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근심이 떠날날이 없는것은 사람이나 우리 요충이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날날 없다고 했듯이 우리 요충같이 알을 많이 낳는 기생충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요충들중에도 반골정신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요충들은 사람 창자의 연동운동(蠕動運動)에 따라 맹장에서 항문쪽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이 친구들은 연동과 반대로 창자를 거슬러 올라가 십이지장이나 위로 올라가고 때로는 식도를 지나 콧구멍에서 발견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충들은 위낙 체구가 작기 때문에 우리의 친척인 회충이 사람몸속을 이행하면서 일으키는 말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듯 합니다.

우리 요충들은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를 낳는 방식이 다른 친척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내려면 사람들은 머리를 좀 썬야합니다. 다른 친척들을 찾아내는 때 변검사방법으로는 우리 요충을 5%밖에 찾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요충들이 장내에서 산란을 하지않고 항문수위에 나와서야 알을 낳는 습성때문이지요. 그러면 항문수위에 산란한 알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수 있을까요? 그

항문에 스킷치 테이프를 붙여 놓고 잠을 잔 다음, 이것을 뜯어 현미경 검사를 하시더군요. 스킷치 테이프에는 어미 벌레까지 한번 붙어 있으면 꼼짝을 못하니 우리에겐 가장 무서운 적이지요.



요충이야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끈끈한 스킷치 테이프로 묻혀내면 되시요. 즉 그라함씨 항분수위포발법이라는 검사법이 이것인데 보통 스킷치 테이프를 약 5~6cm 길이로 잘라 이것의 끈끈한 면으로 항분표면을 찍어낸 다음 이것을 슬라이드에 붙여서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그러면 가을날 보도위에 떨어진 낙엽과 같이 수많은 우리 요충의 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할 때는 잠을 자고 바로 깨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하면 알이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에는 스킷치 테이프를 항분 위에 붙여놓고 잠을 재운 다음 다음날 아침에 베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어미벌레까지 여기 붙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요충검사를 한다고 하면 목욕까지 말끔이 하고 오는데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요충들은 숨겨주려는 그 마음만은 우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다 하여도 유능한 의사들은 어린이들의 손톱 밑에 베까지 긁어서 검사하므로 우리 요충들을 숨겨주려 하여도 소용이 없답니다.

우리 요충들을 죽이는 무지막지한 약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 우리들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만 사람들이 이약을 적절히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이랍니다. 우리 친척들 즉 회충, 구충들을 치료하는데 쓰는 피란셀, 테트라미솔, 베벤다솔 등이 역시 우리 요충에도 잘 듣습니다. 그 전에 쓰던 피페라진, 피르비니움, 테라마이신 등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이 좋아도 우리 요충들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약을 먹을 때 온 가족이 다같이 약을 먹어야 하며, 침구는 일광소독을 하고, 내의는 삶아서 빨아야 하며 집안에 먼지가 없도록 청결히 하지 않으면, 사담주위 환경에 떨어져 있던 우리 요충알들이 다시 감염되기 때문이지요. 그뿐인가요? 어린이들의 손톱을 짧게 깎이고 목욕을 자주 씻겨야 하니 우리 요충을 몰아낸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기에 대작전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바로는 구충후 한달내에 25~50%의 재감염율을 보이고 6개월이면 96%, 1년 이내에 10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요충들은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온 다 하여도 증폭이 멸종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 교수·의박>